

총추위 “강지용 총장후보 재추천”

교과부 결정에 ‘사유경미’ 재심의 요청 학내 갈등 조짐에 교과부 충돌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지용 제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의 임명제정을 거부한 데 대해 총추위가 총장 임용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서 후유증과 함께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교수)는 지난달 26일 교과부의 총장 후보 재추천 통보에 대해 재선거 과정 없이 같은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즉각 반려했기 때문에 알려져 총장 임명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추위는 지난달 26일 오후 대학본관 회의실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재선거 없이 강지용(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로 다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교수 24명으로 구성된 총추위의 이날 회의에는 18명이 회의에 참여해 공개표결에서 16명이 동일 후보를 재추천하는 데 찬성했다.

고봉수 총추위원장은 “교과부의 재추천 요청 사유가 강 후보에 대한 영리행위금지 및 결격사항을

반지 않은 사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부적격 사유로서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강 후보 해명과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판단한 결과, 문제가 된 부분이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추위는 지난 1월 21일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강 교수를 다시 추천해 30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총장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 진상조사위는 “교과부를 방문 조사한 결과, 임용부적격 사유는 영리행위금지와 결격사항을 받지 않은 두 가지 사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영리행위금지 위반이라는 경미한 사유와 결격에 이르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격사항을 위반한 사실적 결과만 가지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어 부적격 처리한 것은 재

판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만약 동일한 후보를 재추천할 경우, 애초 임명 제정을 거부한 기본 사실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일한 재추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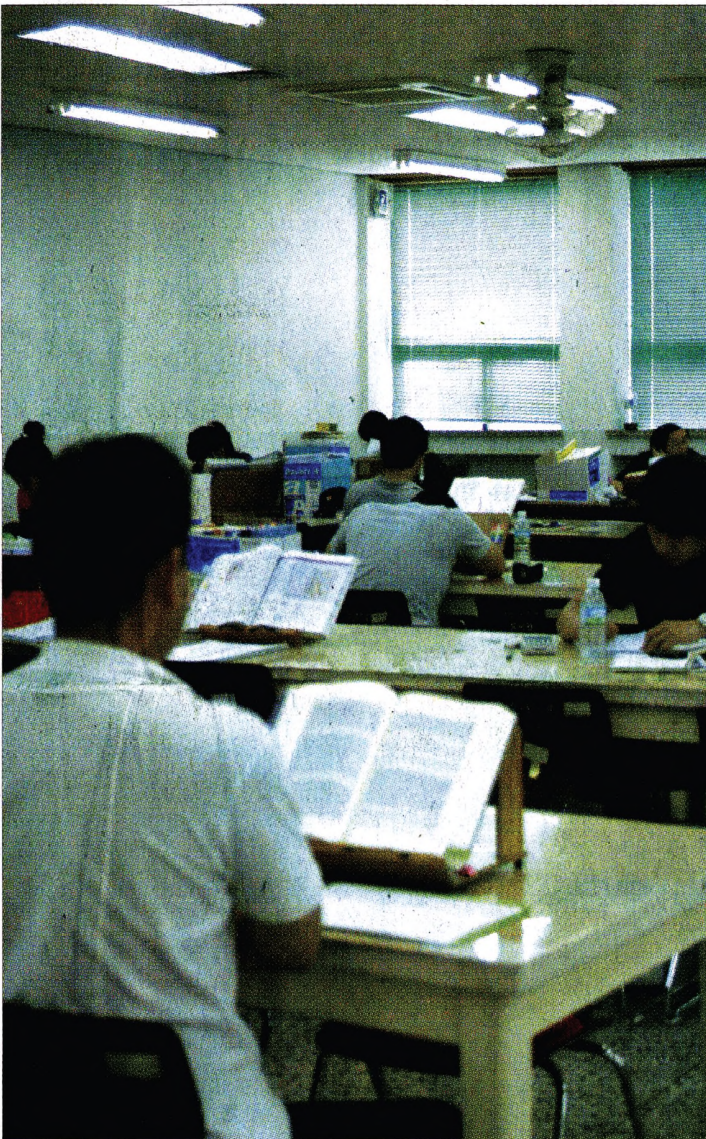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3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1위로 추천된 강지용 후보에 대해 검증결과를 받아들여 부적합 결정을 내려 임용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제주대에 “2인 이상 총장 임용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서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부적격 사유로 “강지용 교수가 교수아파트인 프로빌아파트 건립추진 조함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학본부에 결격사항을 받지 않았으며, ㈜프로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맡는 등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총추위가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7월 중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관선 총장 파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치르도록 규정한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7월 23일까지 선거를 마무리 짓고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 교육공무원 제24조 6항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이내 총장임용 재추천이 없을 경우 교과부 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관선총장이 파견된다.

정용복 대기자



지난달 29일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방학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와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김도연 수습기자

음악학과 진상조사 지지부진

제보 진상규명·책임 밝혀야

지난 4월 불거졌던 음악학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티켓 강매에 대한 대학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측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진상조사위는 4월말과 6월에 걸쳐 음악학과 조사를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설문에서는 114명 중 66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두 번

째는 조사내용의 익명성을 위해 3개 강의실로 나눠 실시했다.

교수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내용의 비밀보장을 위해 중간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긴박한 사항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능장조사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 소속 교수님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발표를 하게 되면 조사 과정이 자주 드러나기 때문에 밝히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음악학과와 관련한 신고접수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이 눈치를 보거나 귀찮아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도내 언론에 대서특필돼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실인지에 대해 알

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범대학의 한 학생은 “음악학과 조사가 지연됨으로써 이 사실을 제주대 구성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조사가 철저하고 빠르게 진행돼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정대학의 한 학생은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으며 자주 지연되고 있는데 일부러 능장조사를 하는 건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상조사가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정작 음악학과 내부의 고충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학과 한 학생은 “신입생이라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과 문제가 발생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식 음악학과 학과장은 “조사가 빨리 끝났으면 했는데 2개월 넘도록 진상조사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아직도 학과 분위기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은데 조사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수습기자

강지용 교수 “재선거, 결코 동의할 수 없어”

교직원계시판 통해 입장 표명

강지용(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가 교과부로부터 부적격 결정을 받은 후 두 번째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달 29일 학내계시판에 ‘제주대 가족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교과부에 임용제정 재심의를 요청한 제주대 가족 여러분, 총추위 및 교수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교직원의 복리를 위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자

부하며 교수아파트 조성 사업에 앞장선 것이 그토록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진상조사위가 조사한 대로 교과부의 재판권 남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견책 정도의 징계사유에 불과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뚜렷한 임용제정 거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재선거

를 치르는 것이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까지 참여하여 감시한 직접선거 결과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목과한다면 재선거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내며 학원의 조속한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직능원, 각종 시험 수강료 지원

LEET·PSAT·MEET 등

직업능력개발원이 LEET(법학 적성시험), PSAT(공직적성시험), MEET(의학전문대학원 시험)를 준비하는 재학생과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 등에게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는 교육역량사업의 일환으로 수험생들에게 수강료 개인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 범위는 개인당 50만원 한

도 내에서 학원강의, 온라인 강좌 구분없이 시험과 관련된 모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직업능력개발원에 직접 해야 하며, 교육 예산인 3750만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과 지원신청서는 직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754-2302~6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 학	학부(과) 전공 [초빙분야]	인 원
공 과 대 학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문화조형제품디자인]	1명
의 과 대 학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병리학], [방사선종양학], [이비인후과학]	분야별 각1명
계	4 분야	4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연구실적확인산출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미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분야별 지원자격

- 문화조형디자인 분야(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디자인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입체조형디자인, 문화조형디자인, 테마조형, 테마문화개발 교과목 실기강의가 가능한 자.
 - (다) 대학에서 실기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라) 최근 3년(2006. 7.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인 논문 1편 이상을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학술지에 발표 실적이 있는 자로서, 개인전 또는 학·협회전 또는 공인된 공모전 수상 실기실적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

※ 공인디자인(차량, 가전제품, 공업디자인적 생활용품, 엔지니어링 기반 제품 등), 시각디자인(광고, 포장, CI, 출판 등) 및 영상3D컴퓨터그래피디자인전공의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함.
- 병리학 분야(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병리학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나) 최근 3년(2006. 7.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국내전문화술지 이상 학술지에 2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자. (단, 석·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

3. 제출서류

- 채용분야 공통
 -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별지서식) 1부.
 -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학위 이상) 원본 및 학위기 사본 각 1부.
 - 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발증 반드시 첨부
 - 경력(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 연구실적증서 목록 및 연구실적증서 목록(우리대학교 소정 별지서식) 각 1부.
 - 석사학위 논문 이상 및 심사용 연구실적증서 각 1부.
 -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
- 문화조형제품디자인 분야
 - 관련 학·협회, 주관기관의 발표 실적을 또는 포트폴리오(연구발표 인증 또는 실적증명서 포함) 원본 각 1부(연구발표 인증 및 실기실적 증명서에는 '개인전', '2인전' 등 규모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프로젝트 참여실적(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프로젝트)증명서 원본 각 1부
 - 지원자의 각종 경력 목록(우리대학교 소정 별지 서식) 1부.
- 의학분야: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 서류 접수기간: 2009. 6. 30(화) - 7. 2(목)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본교에 도착한 것에 한함.

5. 서류 접수처: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수지원과

6. 심사기준 및 전형방법: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jejunu.ac.kr)에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으로 게시됨.

7.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작성은 별지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다.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 목록, 지원자의 각종 경력 목록(문화조형제품디자인분야에 한함) 등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연구실적증서 인증방법 등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라.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마. 2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음.
 - 바. 특정대학 학사출신자 임용제한(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3 제1항)해당할 경우 제1순위자라 하더라도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 및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함.
 - 아.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서류 및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 자. 지원서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위조는 임용 후이라도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차. 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지함.
 - 가. 임용조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제로 임용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수지원과(☎(064)754-2021~2, Fax(064)755-620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 6. 15.

제 주 대 학 교 총 장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66, http://www.jejunu.ac.kr

총학생회, 주민소환 입장표명 논란

중앙운영위 “반대표명 아니라 학내 서명만 자제요청”

총학생회의 주민소환 입장표명에 대해 우리학교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달 7일 도내 5개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군기지과 관련해 김대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에는 “해군기지 관련 문제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정확한 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하고 막무가내식 서명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서명운동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습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즉, 학내에서의 모

든 공간도 학습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내에서 서명운동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운동이니 운동을 자제해 달라”고 입장표명을 했다.

성명서가 발표된 후, 제주대 게시판에는 성명에 반대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게시판에서 강민경씨는 “제3차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이라도 현 총학생회의 김대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성명을 낸 것에 대해 먼저 우리 학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정 학교의 이름을 건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했다. 반면에 “찬성하면 어떠한 반대하면 어떠한가. 이 글은 단지 학교내에서 서명운동을 자제해달라 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중앙운영

위는 “학생들을 대표해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을 정해야만 했다면 자체적으로 설문이나 토론을 열어서 의견수렴을 했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내 서명운동만을 자제해 달라고 의견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적인 의견제시에 부정적인 의견도 게시판에 게재됐다. 김근우씨는 “이러한 사안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라 함은 찬성과 반대측을 전부 이해하고, 중립적이라고 피력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왜 그런 성명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주민소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학생회의 이해와 분석이 포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은 “5개 대학 총학생회

이 친목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비록 5명이지만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주민소환제 서명운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입장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명서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오경남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장 모두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학우들의 의견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단대위, 중앙위 등 각 대표단들과의 많은 회의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온라인 토론회를 만들어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산업디자인학부 ‘디자인 전람회’ 대거 입상

치열한 경쟁 뚫고 우수성 입증

산업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제44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에서 대거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는 산업자원부 주최로, 디자이너 등용문이라 불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람회이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특히 친환경, 공공성 등 사회적 선(善)으로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강조한 작품이 다수 출품된 가운데, 역대 최고인 2409점이 접수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경쟁속에서 제주대는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을 비롯해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사장상, 특선 및 입선을 대거 수상해 총 11개 팀이 상을 받았다. 또 고경란(시각디자인전공) 졸업생이 본 대회에서 3회 이상 특선을 하며 추천 디자이너로 당선됐다.

손영수(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지도교수는 “디자인의 불모지인 제주도에서 육지와의 격차를 줄이며 대거 수상실적을 올린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학생들을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라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목록이다.▲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 △제품디자인(전성수, 김기필, 구자윤 지도교수)-김성용 이태훈 △포장디자인(손영수, 문영만, 정진숙 지도교수)-김영일 강경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상 △포장디자인-김임선 김성용 ▲특선 △제품디자인-강주형 이태훈, 박성빈 고경주 ▲입선 △포장디자인-김성용 강숙현, 조홍일 안소현, 강인희 김임선, 이경희 고주희, 고주희 한지원, 신인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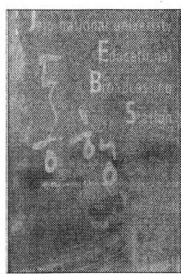
고용희 수습기자

교육방송국 40년사 ‘동행’ 발간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의 40년사를 기념하는 동문지 ‘동행’의 출판식이 오는 10일 7시 제주시 화이트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열린다. 교육방송국 총동문회(회장 강순

석)가 출간하는 이번 동문지는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교육방송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활동내역과 방송제, 영상제, 인터넷방송 등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출판식에서는 동문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동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방송국의 역사를 담은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김도연 수습기자



루앙대 학생 연수단 우리대학서 연수

2일에는 제주시청 방문

프랑스 루앙대학교 학생 연수 프로그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주에 도착한 연수단은 인솔교수 1명과 학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26일 아라뮤즈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29일에는 글로벌하우스 2층에서 환영만찬이 이뤄졌으며 이날부터 김미진(국어문화원 연구원)강사의 한국어수업과 전통문화체험 및 탐방이 아라뮤즈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

졌다.

연수단은 2일 제주시청을 방문하고 환영만찬을 가질 계획이며, 오는 10일에는 아라뮤즈홀에서 국제교류센터소장, 한국어강사, 재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양국 대학교 학생들의 언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을 취지로 이뤄졌다. 강보배 수습기자

의학전문대학원

4.2대1 경쟁

2010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원서접수결과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9학년도 경쟁률인 3.07대 1보다 1.13이 높아진 결과이다.

이번 수시모집 지원결과는 전국 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총 26개의 대학 중 13번째로 충남대와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지원 현황은 모두 63명이며, 그 중 제주지역 출신은 11명, 제주대 출신은 6명으로 나타났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이며, 최종합격자는 9월 5일에 면접고사를 실시한 뒤 10월 1일에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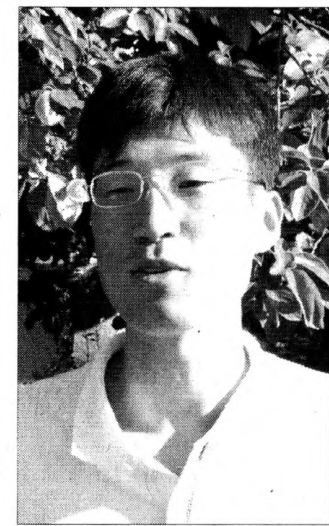
수시 모집 중 작년과 달라진 점은 의학교육입문검사인 MEET 영역별 성적 반영 비율에서 언어추론 5%비율이 낮아지고 자연과학추론 I에서 5%의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수시모집에서는 특별한 모집전형은 없으나 10월에 있는 정시모집에서 우리학교출신자, 제주지역고등학교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있다.

김도연 수습기자

외무고시 합격 양새벽씨, 정치외교학과 99학번

“긍정적인 마음이 비결”... 3전4기로 합격



제주대 출신 최초 외무고시 합격자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정치외교학과(99학번)를 졸업한 양새벽씨이다.

양씨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2009 외무고등고시에서 총 1813명(외교통상직 1699명, 영어능통자 114명)이 지원한 가운데 외교통상직 38명의 합격자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양씨는 44.7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며, 그간 제주대 출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합격자는 있었지만 외무고시 합격자는 양씨가 처음이어서 그의 의미가 더욱 크다.

외무고시에 합격한 양씨는 “일단 주위 분들께서 많이 기

뻐주고 축하해 주셨다”며 “제주대동문으로서 처음 외무고시에 합격해 기쁘고 저를 비롯한 학교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양씨는 외무고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동기로 군 시절에 배식을 한 기억을 떠올렸다. 양씨는 “군대 배식을 하며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듯, 국가의 업무도 맡아 국가적 자원을 알맞게 배분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2006년 본격적으로 외무고시를 준비한 양씨는 처음 공부 당시 외무고시 준비가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제주도의 여건상 외무고시와 관련된 공부를 할 방법이 많지 않았다. 대학에는 외무고시 공부하는 학생도 없었으며, 정보의 제약 등의 문제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제약에도 양씨는 굴하지 않고 외무고시 공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룹 스터디를 조직하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찾아 들었다. 또한 책도 읽고, 논문도 읽는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외국어 공부는 학원을 비롯해 학교에서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택해 공

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그는 외무고등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떨어졌다. 고시를 포기할까 고민도 많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재도전했다.

그는 합격비결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서 열심히, 꾸준한 것이 큰 보탬이 됐다”며 “약간은 낮은 자세로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이 ‘너는 될 것이다’라며 자신을 믿어주는 ‘신뢰’가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양씨는 대학시절 교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제8회 전국대학생 모의UN대회, 안보토론회, 연차총회에 자원봉사 등에 참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양씨는 후배들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며 “그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약학대학 만들겠다” 신설 추진 밝혀

개설추진기획위 발족하고 만발 준비 갖춰

제주대가 약학대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제주대는 약학대학 신설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제주대학교병원 등과의 연계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홍성철 의과대학 부학장은 “제주도는 해양 자원이나 한라산 자생식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바이오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중 제약 산업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기대를 표했다. 또한 그는 의과대학에서 약이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

게 학과대학이 없는 약학대학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대학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등 약학대학 설치 기반이 충분하다”며 약학대학 신설 추진에 희망이 있음을 시사했다.

제주대는 이를 위해 총장, 처·국·단장, 의과대학장으로 구성된 개설추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약학 분야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개설팀 T/F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개설 제안 T/F팀 1차 회의를 가져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준비 사

함을 검토했다.

한편, 약사 인력의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족부 관계자는 “제약 시장이 개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세계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은 필수”라며 “약사 인력 충원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대를 포함하여 고려대, 연세대, 경성대, 전남대 등 전국 많은 대학들이 약학대학 설립 추진에 나서, 대학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고용희 수습기자

제1회 수업실기 경연대회 현장 가보니

“실기보다 창의력·개성 키우기 주력”

김성용 학생, 최우수상 수상

학생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1회 수업실기 경연대회’가 지난달 4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대회는 교육대학원,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최 측은 이 대회를 대학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총 28명(사범대학 20명, 교육대학 8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6명의 학과장이 심사해 나갔다.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수업을 뽑냈으며 본선을 통해 총 7명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박정환 심사위원(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은 “전반적으로 참

여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었다”면서도 “재미 위주의 수업과 내용의 질적 전달 위주 수업 간에 혼돈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용(지리교육 4) 학생은 “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부족한 점도 체크하고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자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도 지리에 대한 수업을 했던 김성용 학생은 “수업은 도입, 전개, 마무리 이 3단계 구조화를 어떻게 잘 시키느냐와 학생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임용고사에서 좋은 결

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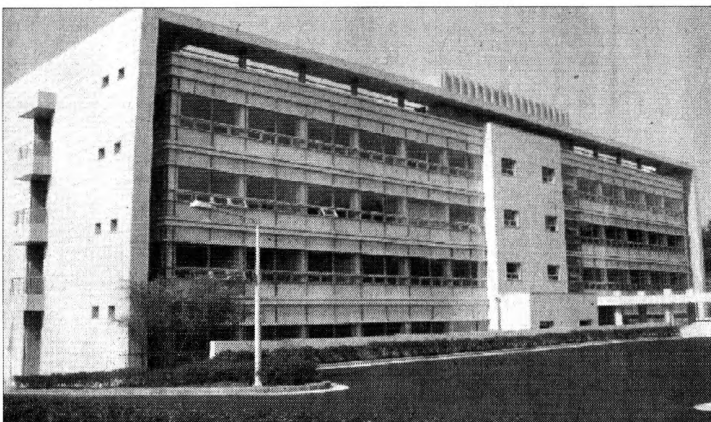
대회를 관람한 사범대학 김민주 학생은 “대회를 보면서 선생님 되는 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닌 전달하려는 지식을 학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할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전달하려는 지식보다 많은 지식을 준비하고 많은 고민을 거쳐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상자명단 △최우수: 김성용(사범대학 지리교육) △우수: 이경민(사범대학 물리교육) △장려: 강호정(사범대학 지리교육), 오지훈(사범대학 영어교육), 오지훈(사범대학 국어교육), 황윤경(교육대학 영어교육), 박성민(교육대학 과학교육)

김현숙 수습기자

해양과학대 4호관 준공식

“열악한 강의·연구환경 해소”



지난달 15일 준공된 해양과학대학 4호관 전경

해양과학대학(학장 허철구 토목환경공학전공 교수) 4호관 준공식이 지난달 15일에 열렸다.

지난 2005년 6월 착공 후 지난 5월 17일에 준공된 해양과학대학 4호관은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구조에 연면적 49만 8283㎡(15만 730평) 규모로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과학대학 4호관은 해양생명과학전공, 수산생명의학전공, 해

양시스템공학과가 사용하게 된다. 이제희(수산생명의학전공) 교수는 “과 특성상 깨끗한 실험환경이 필요한데, 4호관 준공이 그간 지하에서 연구를 하던 많은 교수님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여류 실험을 위해 여류를 기르는 공간도 부족했는데,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올 상반기 신규 국책사업 총 640억 유치 “민주주의 다시 세우자”... 교수 59명 시국선언

신규 연구개발에 자금 142억 투입

교수 개인연구과제도 119억 수주

올해 상반기 우리대학이 유치한 국책사업 규모가 총 6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단(단장 현명택 기계공학전공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400억 규모에서 올 한해만 총 640억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2억 이상이 신규 연구개발비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선정 한 풍력특성화대학원 유치사업과

2009지역연구진흥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각각 5년간 36억원과 3년간 42억원에 달한다.

또 국토해양부는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 사업에 우리대학을 선정,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연계망 구축사업으로 5년간 27억 3000만원, BK21신규사업단으로 4년간 10억4000만원을 지원하며, 교육대학 실용영어 지원사

업도 6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기타 사업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여건의 국책사업이 최종선정됐다.

이와 더불어 교수 개인연구과제 수주실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 총 과제수 152개 과제 84억원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429개 과제 119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여, 2007년 대비 5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올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에 15억원의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용복 대기자

MB정부 소통불능 공안통치 회귀

‘주민소환운동 지지선언’ 도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행을 우려하며 제주대 교수들이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지지선언과 시국선언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교수 59명이 인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은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소득 상위 1%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종부세 폐지, 용산철거민 참사,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호도하는 4대강 개발, 자사고, 특별고교 대변되는 부유층을 위한 교육정책, 노골적인 언론장악 음모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통불능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공안통치로 회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 “현 시국이 그동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의 국면으로 단정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대 교수 60명은 지난 달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주민소환운동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교수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로는 처음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부재, 일방통행과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공권력의 남



지난 10일 제주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민선 이반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용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만 가고 있다”며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운동도 정책추진과정에서

서의 민주성이 크게 훼손되고 도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의 형태가 초래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광역인재육성사업·교육강화사업 효자노릇 ‘톡톡’

누리사업 종결 후에도 올 한해 106억 사업비 확보

누리 후속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학생 장학금, 교육환경개선, 인턴십 및 연수사업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단장 현명택 교수)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에 우리대학이 연간 64억9000만원을 5년간 받기로 하면서 총 32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올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1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재학생 500명 이상 1만명 이하 22개 선정대학 중 최고로 많은 금액이다. 이로써 제주대는 지난해 신설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8억4200만원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는 재학생 1만명 미만 지방대 중 전국 최고로 많은 금액인 41억29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총 477억 원을 받은 누리사업 종결로 우려가 많았지만, 새 사업에서 당당히 선정됨으로써 학생경쟁력 향상을 위한 후속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장학금, 취업 지원, 국제화 지원, 산학협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 된다. 특히 경기 불황, 고용사정 악화를 감안해 졸업생 및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와 장학금에 높은 비중을 두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4년 시작된 누리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조, 특성화 사업 인력 양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으며 우리대학은 매년 102억원씩, 5년간 총 477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해 평균 교원 확보율

은 2004년보다 17% 오른 87.8%로 높아졌고, 학생 총원율도 11.7% 상승한 100%로, 학생취업률도 14.5% 오른 55%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현 정부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올해 신설된 ‘우수인력양성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 부흥을 위한 목적으로만 할당했던 누리 지원금이 사라져 당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우리대학이 당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변화와 혁신 노력에 따른 다양한 성과들이 교과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제주대가 지향하는 발전 전략에 따라 대학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김병택 교수, 후즈후인더월드 등재

2010년판, 문학교육가 명칭 부여

김병택(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세계인명사전 ‘후즈 후 인더월드’ 2010년판에 등재된다. 김 교수는 인명사전에서 ‘문학교육가’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으며 직업, 국가, 학력, 가족관계, 전공 분야, 관련 저서 등이 함께 등재된다.

김 교수는 “현재 ‘시의 예술 수용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예술의 역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졸업하고서도 관련 직종에 종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없으니 실력을 기르는 자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도 남겼다. 김현숙 수습기자

〈줄기세포연구소 부설 미래생명공학연구소〉

김재연 연구원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 동물번식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소 김재연 연구원이 지난달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한국동물번식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및 제7차 아세안 발생생물학회 국제공동심포지엄’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김은영 미래생명공학연구소장과 박세필 생명공학부 교수의 공동지도로 수행된 ‘배아줄기세포 유래 생리활성물질이 소 수정란의 체외발달에 미치는 효과연구’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은 동물 복제와 맞춤형 줄기세포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물질은 주름개선, 플라센, 아미노산 등 다양한 성분들을 포함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임 치료 시 난자수정 과정에서 수정란을 잘 발달시키기 위한 첨가제 등 다양한 신소재로의 활용도 가능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김재연 연구원은 “줄기세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현숙 수습기자

‘소리어울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선정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제주대학교 소리어울림 청년사업단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리어울림사업단(단장 김정희 예술학부 교수)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대상으로 선정, 국고와 지방비로 3억여원을 지원받아 월평균

35명의 졸업생을 채용한다.

소리어울림 사업단은 앞으로 도내 취약계층 약 1천68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이미지 제고와 멘토링을 통한 취업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재활승마 아카데미 유치 확정

장애인 돕는 지도자 육성 교육과정

제주마산업 수강료 전액지원

재활승마 아카데미가 제주대 인력양성사업으로 지난 4월 27일 유치 확정됐다.

재활승마란 승마를 통해 장애인들의 성취감, 자신감 등을 고취하여 그들의 재활을 돕는 승마이다. 재활승마 아카데미는 재활승마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미 독일은 중심으로 한 유럽 등지에서는 재활치료수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의 경우, 승마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활치료 목적의 승마와 관련 교육과정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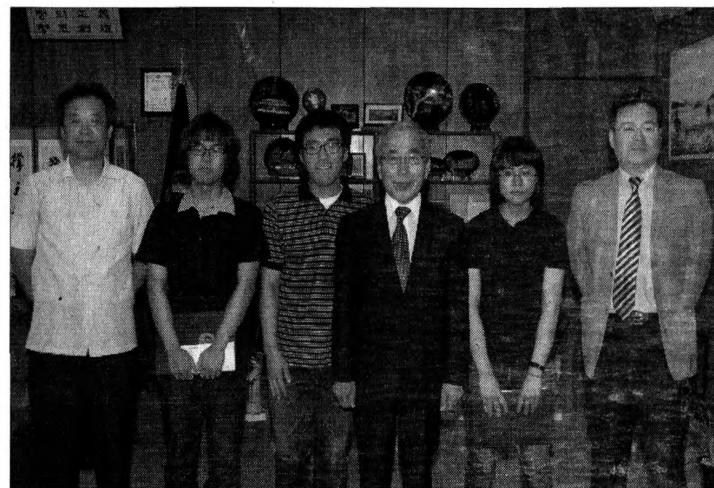
재활승마 아카데미의 주임 교수인 강민수(동물자원과학전공) 교수는 “국내 최대 마산지인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말의 활용을 의료 분야로 확대 시켜나가는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번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에 우리대학교가 재활승마 아카데미를 유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활승마 아카데미의 교육구성은 이론수업과 실습과정의 100시간이다. 아직 자세한 교육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론 교육은 매주 목요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실습은 휴일 중에 이뤄진다. 교육 장소는 이론 교육의 경우 생명자원과학대학 3309 강의실이며, 실습 교육의 경우 송당 경마장에서 이뤄진다.

교육 내용으로는 의학적 지식, 장애인 심리학, 수의학적 지식, 마필관련 지식, 승마 등 다양한 부문으로 돼있다. 참가비용은 농업법인 제주마산업주식회사에서 재정이 지원돼 무료이다.

고용희 수습기자



지난달 25일 총장실에서 최치규 총장 직무대리가 백록문학상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백록문학상 시상식 거행

김성용 학생 등 3명 ‘가작’ 입상

제29회 백록문학상 시상식이 지난달 25일 총장실에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 부문에 김성용(지리교육 4) 학생이 “방랑”으로 ‘가작’을, 소설 부문에서는 박승채(독일 1) 학생이 “어둠속의

두 눈”으로, 양미혜(행정 4) 학생이 “위대한 하루”로 각각 가작에 입상했다.

한편 백록문학상은 우리대학생들의 문학역량을 키우며, 창작의 욕을 자극하고자 지난 1991년 제정됐다.

고용희 수습기자

“제주 알리는 스토리텔러 될 것”

김진철 학생, 제주로케이션 시나리오 최우수상

김진철(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학생이 ‘제주로케이션 활성화 위한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주영상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제주지역의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및 영상물제작의 활성화를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시나리오 주제는 제주의 자연경관과 신화 그리고 역사의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것이며, 수상한 시나리오는 중·단편 극영화 영상물 제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김씨는 3월 초 스토리텔링학과 홈페이지에서 공모하는 것을 보고 ‘꽃자왈에서 길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공모했고 그 결



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진철 학생은 “앞으로 학과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성실히 밟아, 제주를 소재로 글을 쓰고 알리는 스토리텔러가 되고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연 수습기자

평화통일과 제주지역 대학생의 역할 모색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포럼 개최

‘2009년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포럼’이 지난달 23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 3실에서 개최됐다.

윤리교육과가 주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제주지역 대학생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종훈(영어교육과 교수) 사범대학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이 ‘평화통일: 당면 현안과

장기적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또 김민주(윤리교육 4) 학생의 ‘제주지역 대학생의 통일관과 바람직한 대학생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의 통일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일과 관련해서 대학생의 역할을 제안했다.

또한 허선웅(정치외교 4) 학생의 ‘한반도 평화통일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최근 북한의 군사·안보적 태도와 북한대도의 향후방향

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발표 주제에 대해 고원상(윤리교육 3), 김규정(사라캤 윤리교육 4), 김윤규(정치외교 2) 학생들이 참여해 토론도 이뤄졌다.

이어 ‘평화통일을 위해 대학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성준(윤리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강경희(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고대만(초등교육과) 교수의 강평이 이뤄졌다.

강보배 수습기자

‘저작권 보호’ 특허 세미나

‘대학의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제2회 특허세미나가 산학협력단 주최로 지난달 23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정적을 떨어트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표절 혐의를 받은 교수는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퇴임까지 평생 자신의 명예가 감옥이 될 것”이라고 불명확하게 남용되는 표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 교과부 재추천 거부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

진상위 ‘부적격 사유 미미’에 총추위 재심의 요청

교과부 재추천 사실상 거부 입장... 학내 갈등 조짐도

대학이 총장공백 상태로 운영되며, 대외적 이미지 훼손을 비롯해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3일에는 교과부로부터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총장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11일 구성됐고, 그 결과보고서도 발표했다. 지금까지 총장임용 지연과 거부, 재심의요청까지의 진행 과정을 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짚어본다.

진상조사위,
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교과부의 재추천 요청 공문이 전달된 뒤, 교수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총장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교과부와 총장임용 1순위후보자 및 본부 측 관련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는 교과부의 재추천 결정 후 1순위 후보자의 교과부 입장 수용거부, 교수회의 대학 자율권수호 특별위원회회의의 규탄성명서, 대학본부의 재선거 논의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총장임용후보자를 만나 부적합사유, 부적합사유에 관한 각종의혹, 교과부의 자율성 침해 및 월권행위 여부, 교과부의 입장, 대학본부의 입장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는 강지용 교수와의 면담, 교과부를 찾아 관련자 면담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총장직무대리와 면담도 진행했다.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과
교과부 재추천요청까지

지난 1월21일 총장선거선출 과정을 통해 강지용 교수가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결정됐다. 본부는 이 결과를 총추위로부터 전달받고 교과부로 결정사항을 제출했다. 3개월이 지난 5월1일 정식적으로 총장임용이 결정될 시기에 교과부는 직무대리체제를 요청했다.

그 후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와 본부, 당사자 간의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사항이 다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문 내용을 보면, 교과부에서 처음 1순위 후보자에게 보낸 민원제기에 따른 소명서 제출 요청의 공문이 본부로 전달된다. 또 이어 1순위 후보자에게 보낸 ‘결격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전화로 요청 받은 뒤 본부 측이 이에 관련한 사항을 제출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본부의 답변부분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공문 내용은 “우리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추천된 강지용 교수의 ‘프로필’ 동호인 연립주택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결격허가 위반 사실을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추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문제는 강지용 교수가 프로빌 사업추진위원장 직을 역임한 것과 영리행위 부분이다.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결정이 내려온 뒤, 학내에 일고 있던 그 외의 투서로 접수된 내용들이 문제시 됐을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는 내용으로 부적격여부를 가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지용 교수는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 및 프로빌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영리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에서도 사실상 결격허가를 묵인하였음에 따라, 교과부의 부적격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의 투서 자체가 무기명이다 명의까지 도용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사실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결격허가)를 위반한 사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영리행위와 결격허가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1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는 일반교수의 신분이라도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며, 총장에게는 더 높고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총장임용 부적격 사유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적시된 부적격 사유 중 보수 수령 여부나 이윤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영리행위 금지의무 및 결격 사전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입장이다.

과연 교과부의 재량권 남용인가

교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자율권을 교과부에서 침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교과부 방문을 통해 대학 민주화로 결정된 총장임용후보자를 교과부가 임의로 거부한 것은 지금의 총장직선제의 본질적인 취지인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반한다고 말한다. 또 1순위 후보자의 위반사항이 총장임용여부를 결정할 심각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총장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

장이다. 대학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1순위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일종의 압력을 넣는 것이며, 재추천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나름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훼손과는 무관하는 입장이다.

향후 제기되는 문제

진상조사위의 보고서 결과, 교과부와 총추위 간의 대립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과부에서 요청한 재추천을 총추위가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총추위를 통해 재심의가 요청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심의 요청과정에서 향후 교과부에서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총추위는 뒤로 미루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총장임용은 계속적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총장임용 지연에 따른 학내 문제, 대학 이미지, 관선총장 파견 현실화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준건 기자

■ 진상조사 보고서 뭘 담고 있나

“부적격 처리는 재량권 남용”

교과부 방문조사 토대로 보고서 작성

교과부의 총장임용거부에 따라, 교수회 산하 대학자율권수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하진환 식품생명과학과 교수, 이하 진상조사위)가 2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했다. 진상조사위는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교과부가 임용후보자를 거부한 판단 기준은 경미한 사안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어 부적격으로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결론을 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간 총장임용제정 거부사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수회 규정 제15조 1항 5호에 의거 특별위원회구성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한석지(초대 교수회장), 고봉수(현 총장임용추천위원장), 김태보(전 교무처장, 전 경상대학장), 이창준(전 자연대학장, 현 교총회장), 하진환(전 공과대 학장), 김봉애(전 자연대 부학장), 강봉수(전 사범대 부학장), 하승수(전 변호사), 손영수(전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장)교수가 위촉됐다. 진상조사위의 조사대상은 총장임용 1순위후보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본부 측 관계자이며, 목적은 총장임용 후보자 임용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그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임용부적격 사유는 영리행위금지조항과 결격허가를 받지 않은 두 가지 사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가 프로빌 사업추진위원장 및 (프로빌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의 범조항 위반이 임용거부사유로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그러한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5조를 해설한 행안부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예규에는 영리 업무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 또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근거로 “1순위후보자는 (프로빌)을 통해 어떠한 영리적인 업무를 한 바 없고, 무보수로 일했을 뿐만아니라 직무상의 능률저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적격여부 판단은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 적시된 단서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영리행위금지 위반이라는 경미한 사유와 결격에 이르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격허가를 위반한 사실과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며 이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에게도 가혹한 처사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한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된 후보자가 교과부의 제청권 행사로 거부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자율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대학구성원들은 이러한 대학의 소중한 가치와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총장선거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준건 기자

■ 인터뷰-고봉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

“이달 말까지 재선거 문제 없어”

—교과부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결격허가와 영리행위 금지 위반)그 행위가 약하다는 강하한 행위는 있었다. 말하자면 약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명시돼 있다. 교과부가 그걸 가지고 임용 거부를 했다

—이번 상황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이야기가 많다.

“대학 이미지 훼손이 크다. 어마어마한 이미지 손상이 이뤄졌다. 그래도 모든 선거는 시 선포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선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선거후보 등록자의 개인 사안까지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교육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거부됐나?

“교내에서 문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걸 누가 문제화해서 선거 전에 징계를 받았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징계가 없었더라도, 강지용 후보가 프로빌아파트 건립추진 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규정에 보면 총추위는 이 사항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을 총장후보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자격제한 조건 같은 것이 없다. 오로지 후보는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유보 검증 부분은 총추위의 역할이 아닌가

“지금의 규정으로는 검증을 못하게 돼 있다. 규정에 내용이 있어야 결격 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 총장 선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교수회이다. 총추위는 규정을 못 고친다. 만 들어진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학내에 의견들이 분분하다.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나

“총추위가 의견 수렴을 해야할 책임은 없다. 그런 것은 모두 교수회의 역할이다. 우리는 규정대로 위원 과반수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기한을 못 지키고 7월 31일을 넘기면 법적으로 관선 총장이 내려올 수 있다.

“그건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 문제다. 적용을 하면 관선 총장이 오는 것이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가는 것이다. 학생들도 시험을 제 시간에 치르지 못하고 변명을 하면 조금 늦춰서 재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기한이 늦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우리는 최대한 날짜를 맞춘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15일 동안에 우리는 후보 등록을 받고 얼마든지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고봉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



고봉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

■ 인터뷰-강경호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총장 임용제정 거부 심히 안타까워”

—임용거부 사태에 대한 입장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임용거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대학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만약 관선총장이 내려온다면 발생될 폐해가 많다.

“관선총장이 내려온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선총장에 의한 폐해는 어떤 관선총장이 내려오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좋은 관선총장이 온다고 해도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선거에 의해 뽑은 총장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직선제 폐해이기도 한 교수간의 분쟁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수들 사이에 분쟁이 일고, 서로 편을 가르며 어느 한쪽 편만을 지원하는 등 직선제를 통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직선제는 아직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등 보완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직선제 대신에 간선제를 도입해 외부감사기관을 두는 방법에 대해

“한편에서는 간선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간선제까지 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 직선제를 개선, 보완 하던 서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 재총장 공백이 가져온 문제와 앞으로의 우려에 대해

“총장 직무대리체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총장이 임용되지 않아 큰 사안이나 정책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까봐 염려 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교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다는 의견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보니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직원들 사이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식적인 설문은 통한 의견수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원들을 중심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강경호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강경호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인터뷰-유은종 교수지원과장

“교과부 결정 전적으로 수용해야”

—총장임용지연으로 생기게 될 문제는

“총장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는 전혀 없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총장임용과 관계없이 직원들은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사태에 따른 대처와 앞으로의 진행은

“교과부에서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에 반드시 재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수지원과는 대학의 한 기관으로서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공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한 것인지 검토할 권한은 없다”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사유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이기에 질문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총장임용자후보자 재추천은 교과부에서 지시했고, 제주대학교는 법 규정 자체를 따르는 것 뿐이다. 현재 총장 임용거부는 위법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한 후 교과부의 자문을

받게 돼 있다”

—재선거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관선총장이 파견될 수 있다.

“재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선거는 이달 초까지 후보자를 받고 시작될 것이다. 임용후보자 추천까지 20일정도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관선 총장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내려오게 된다면 8월1일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

—직선제가 문제점이라는 의견에 대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추후 선거가 끝나고 자율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총장임용자후천 문제들과 관련해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일부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방법은 직접 투표의 방법이 아닌 추천제를 구성해 임용후보자 선출한 뒤 총추위가 직접 추천하는 방법이다.”

—이미지 손상 등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나?

“이미지 훼손이 분명히 있다. 이는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 누구 한명이 책임 질 수 있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박준건 기자

◆ 총장 공석 장기화 우려

발전기금 유치·대학발전 정책 손놓아

도민 우려 목소리도 커져... 대학 이미지 실추 불보듯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수학교육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교과부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강지용 교수에 대한 재심을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총장 공석의 장기화로 법학전문대학원 연착륙 여건조성, 약학대학 추진, 대학발전기금 모금 활동, 대학경쟁력 약화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 지 한학기가 지났다. 그런데 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법학전문대학원에 연착륙 여건 조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수업과 같은 대학 내 활동에서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일반기관과의 업무협약과 같은 대외적인 활동에서는 총장의 공석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점점 장기화되는 총장의 공석 사태로 법학전문대학원과 제주대의 대외적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약학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과대학 중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사업에 총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학내의 걱정 목소리도 있다.

약학대학 추진과 관련한 관계자는 “아직은 약학대학 설립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힌 것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총장의 공백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만약 총장의 공백이 길어진다면 약학대학 추진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 총장공백문제로 대학발전기금 모금 활동도 예전 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학발전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

는 사업형 발전기금활동을 벌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총장 취임 후 기금확충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이와 관련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영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총장의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주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발전기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지원형 발전기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자리가 공석이 된 후 들어온 발전기금과 관련, “기존의 소액으로 들어오는 기금이나 분할 납부되고 있는 기금들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대학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총장이 발전기금 확충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는 발전기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총장 공석 장기화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원의 한 직원은 “총장 직무대리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 총장이 임용되지 않아 큰 정책결정 문제가 무어짐으로써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까봐 염려가 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학의 이미지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었다. 도남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제주대는 제주도의 거점대학으로서 도내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최근 총장과 관련한 일련에 사태로 인해 제주대의 이미지 하락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이미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총장 공석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대학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국립대 총장 임용 절차는?

현행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은 교수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1, 2위를 한 교수 가운데 한명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한다. 이에 앞서 열리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총장후보의 법적·도덕적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임기 4년의 국립대 총장에 임명된다.

관선 총장 파견 현실화 되나

총장 추천 안되면 관선총장 임명

옛 제주교대 첫 관선 파견 오점남겨

총장 임용 지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칫 관선 총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선 총장이란 국가에서 직권으로 임용시킨 총장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을 보면,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 있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르면 제주대의 경우 전임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4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총장 후보자 추천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월 31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총장 임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높아만 가는 우려의 목소리

상황이 여기까지 달하자 학내에서는 관선총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관선 총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학구성원들이 직접 뽑은 총장이 아니다. 대학의 리더인 총장이 구성원들의 투표가 아닌 관선으로 파견될 경우, 학내 구성원들을 잘 옹호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임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구성원들의 바람은 직접 선거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아무리 권력기관인 것이라지만 관선 총장이 내려온다면 내부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에서는 이미 관선 총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굳어진 상태이다. 인문대학의 한 교수는 “관선총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선 총장이 파견된 제주교대 사례

통합 전 제주교대는 총장선거 파행으로 지난 2005년에 국립대 최초로 관선 총장을 맞았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4년 5월 제주교대 제4대 총장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총장선거에는 김병희(체육교육과) 교수와 조영배(음악교육과) 교수가 후보 등록을 했다. 두 후보는 같은 해 5월 24일 소견발표를 갖고, 25일 예비투표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견발표 당일, 송재홍(교육학과) 교수가 두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한부 단식

농성에 나섰다. 송 교수는 당시 파벌주의의 정점에 선 두 교수가 대학의 화합을 위해 모두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조영배 교수는 이날 오후 소견발표장에서 학내 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독 후보가 된 김병희 교수는 25일 예비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조영배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교수들이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이번 선거를 ‘불법선거’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장은 고함과 욕설로 뒤덮여 교수들 간의 갈등의 골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후 2번에 걸친 재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아무도 없어 총장선거 자체가 무산됐다.

제주교대는 김 교수를 지지하는 ‘일반 교수회’와 조 교수를 지지하는 ‘개혁교수협의회’로 파가 갈려, 1년 여의 시간을 갈등과 반목으로 보냈다. 결국 마지막으로 추진됐던 총장선거는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문제제기에 걸려 무산됐다. 끝내 교과부는 2005년 12월, 김정기 총장을 관선총장으로 직권 임용했다.

당시 모든 상황을 겪은 제주교대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현재 제주대 총장 임용 상황에 대해 격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많은 교육대학 교수들이 최대한 관선 총장이 내려오는 일만은 막아야 하며, 총장선거관련 학내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화합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관선 총장 임용 후,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대학의 한 교수는 “관선총장이 내려오면 교과부 보조금도 줄어들고 모든 평가와 프로젝트에서 제주대는 감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총장 임용 일정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총추위 등의 관련자는 모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과거 제주교대의 경우를 들었다.

한편 현재 제주대 총장 임용 지연의 원인이 ‘교수들 간 편을 나눈 분쟁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교대의 사례를 참고할 때, 무엇이 진정한 제주대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고용희 수습기자

◆ 교과부의 총장임용 거부, 국립대 사례는

전북대, 재추천했으나 교육부 다시 ‘반려’

목포해양대 총장은 겸직허가 위반으로 ‘낙마’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거부한 사례로는 전북대와 목포해양대 등이 있다.

전북대의 경우 교육부의 부적합 결정에 총장후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재차 반려해 재선거를 치를 사례이다.

교육부는 2006년 8월 22일 인사위원회에서 전북대 15대 총장후보 1위로 추천된 김요환(치의학과) 교수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과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북대에 통보하고 총장 후보를 다시 선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교수회는 크게 반발했다. 교수회는 “전북대 교수와 직원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반려한 것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김 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교수회는 교수총회를 열어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재선거나 재추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고 김 교수를 조속히 총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총추위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육부가 김요환 교수에 대해 ‘도덕성 문제’로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재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선거 없이 김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부적격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재추천 공문을 반려하고 재선거를 요구했다.

이 와중에 김요환 교수가 교육부로부터 부적격 결정을 받은 지 한달만에 자진 사

퇴했다. 김 교수는 ‘제15대 총장당선자직을 사퇴하며’라는 성명에서 “임용문제로 전북대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 교수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사퇴를 미뤘으나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대내외 ‘압박’에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교수회는 김 교수의 후보직 사퇴를 수용, 총장임용추천위를 소집해 재선거를 실시, 결국 2006년 10월 25일 재선거를 치러 현 사거석 교수를 새로운 총장후보로 선출했다.

또다른 사례로, 지난 3월에는 제5대 목포해양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총장 임용이 무산돼 4월 재선거를 치렀다.

교과부는 지난 3월 5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목포해양대에 “이른 시일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해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공직자는 퇴직 후 영리단체나 협회에 취직할 수 없는데 추 후보의 경우 건교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건설단체연합회 고문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목포해양대는 추병직 전 장관의 임용 무산으로 4월 16일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재선거를 치러 제5대 총장에 안영섭(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가 선출돼 지난 7월 9일 취임했다.

지난 1998년 삼척산업대는 국립대 대학총장 임용제청이 첫 거부된 사례로 기록된다. 당시 교육부는 국립 삼척산업대가



총장 임용제청이 거부된 전북대는 재선거를 치뤄 새 총장을 선출했다. 사진은 전북대 캠퍼스 전경

직선해 임용추천한 총장후보 2명에 대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총장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교육부가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를 임용제청 하지 않은 것은 삼척산업대가 처음이다. 교육부 조사결과 이들 두 후보는 교수임용 때 병적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면직됐거나 공공위원 협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6년 7월 조부의 친일행적 논란으로 총장 임명절차가 지연된 서울대

이장무 총장과 2006년 5월 재산 위장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던 충북대 임동철 총장은 임용여부 논란 속에서도 교과부로부터 총장에 임명된 전례도 있다.

또한 지난 1998년에는 이기준 서울대 교수가 장남의 병역문제 등으로 임용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제22대 서울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교수 장남의 병역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복 대기자

◆ 총장추천위, 재심의까지 과정은?

총장임용제청 거부 ‘사유 경미’

총추위 재심의 요청에 교과부 결정 관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주대 총장임용 후보자를 3개월간 검증과정을 거친 결과, 지난달 3일 총장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제주대로부터 총장임용후보자를 50일 내에 재추천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렸다.

총장직무대행은 이에 따라 이날 총추위로 총장 재선거 공문을 총추위에 발송했다.

8일에는 고경표 교수회장이 성명을 내고 “검정정도의 징계사유에 불과한 법규를 적시하며 직선제 총장 임용후보자를 중대한 범법행위자로 몰아넣는 처사에 울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사태에 대한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총추위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재선거 실시 요청 사유와 요건이 불분명하고 불충분하여, 재선거 실시 요청 공문을 본부로 재반송을 의결했다. 또한 재추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2명을 포함한 총추위 위원회 임원진, 정보 공개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재추천 사유를 수집한 후 재추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추위는 하진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5

일 2차례의 교과부 방문을 통한 관계자 질의 응답과 본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순위 후보자의 임용제청 거부와 재추천사유를 수집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총추위에 보고했다.

다음날 총장추천위원회는 교과부 재추천 사항을 수용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의원들은 투표를 실시, 18명 중 16명이 찬성했다. 결국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강지용 총장임용 후보 1순위에 대한 재심의를 교과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총추위의 재심의 요청 공문은 대학 본부인 교수지원과를 통해 교과부에 접수된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러한 재심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북대의 경우에서도 임용 거부 내용은 상이하지만, 교육부는 기존 부적격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재추천 공문을 반려하고 재선거를 요구했었다.

총추위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질문에 “26일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우선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했다”며 “교과부가 총추위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그때 가서 재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 개의 후각능력에 의한 암 조기 진단 연구

개 후각으로 암세포 배양액 찾기 성공

95% 성공률로 암 조기 발견 가능성 열려



강민수 생명공학부 교수

2006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13만 1천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같은 해의 건강보험대상 암환자 보험재정지출은 1조 8,383억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이미 2002년도 한 해 기준으로 11조 3000억 원에 달해 우리사회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진단이 중요함에도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혈액검사 또는 소변검사와 같은 간단한면서 기초적인 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 초기에 이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기란 어려우며, 암 종류별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사를 병행하여야만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마도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 또한 환자에게는 이러한 검사가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 건강검진 과정에서 채취된 소변이나 혈액을 특수하게 훈련된 개로 하여금 냄새 맡도록 하여 암 발생 여부를 1차적으로 조기 진단할 수 있다면, 해마다 증가하는 신규 암 발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엄청난 치료경비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냄새분자는 대략 300 dalton 미만의 작은 분자량을 갖는 유기화합물질로 개의 후각은 초산(acetic acid)의 경우 사람의 한계치에 비해 무려 2억 5천배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냄새분자가 공기 중으로 발산되지 않는 MHC(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분자와 같은 비휘발성(Non-Volatile) 물질에 대해서도 반응하여 각기 다른 사람 고유의 체취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개의 우수한 후각능력은 오래

전부터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암소 발견기 탐지 등의 특수한 용도에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의학, 문화재 보호 등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암 탐지 분야에 대한 개의 활용은 기존의 기계적 진단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착안하여 외국에서 진행된 기존의 실험과는 다른 방법으로 개 후각을 이용한 암 탐지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암세포에는 특이적 대사물질이 존재하고 이러한 암세포 관련 대사물질은 정상세포의 대사물질과는 다른 독특한 냄새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전제하에, 우수한 후각능력을 가진 개가 암세포 배양액과 정상세포 배양액, 암세포 주입 전위의 배설물과 주입후 쥐의 배설물의 냄새분자를 구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개가 후각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쥐의 유방암 및 대장암 세포를 배양하는데 사용한 배양액(암세포 배양액)을 제거된 상태의 암세포를 배양하지 않은 동일 성분의 일반 배양액군과 대치 태아 세포(일반 세포)를 배양하는데 사용된 배양액군으로부터 선별해 내는지 여부를 실험함으로써, 암세포 배양액내에 일반세포와는 다른 암세포 특유의 냄새인자를 지닌 대사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둘째, 생쥐 4마리에 유방암과 대장암 등 2종의 암세포를 주입하여 생쥐의 생체내에 인위적으로 종양을 생성시킨 뒤 각 생쥐의 배설물(소변)을 채취하여, 개가 암세포 주입 전의 동일 생쥐들의 정상 배설물과 암세포 주입 후의 배설물을 후각을 이용하여 선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함으로써, 암 발생 이후의 배설물내에 발생 이전에 없었던 암세포 특유의 대사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실험에서 탐지대상 암종류(유방암, 대장암) 샘플이 바뀔 경우 암종류에 따른 개의 탐지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각기 다른 암종류의 대사물질내에 개가 같은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동일한 냄새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넷째, 위의 두 번째 실험을 통하여 암의 진행 결과에 따라 개의 탐지 정확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개의 후각으로 탐지



작년 2월부터 금년 3월동안 시행된 실험에서 특별하게 훈련된 두 품종의 애완견이 일반세포의 배양액과 암을 유발시키는 세포의 배양액을 후각을 통해 구별하고 있다.

가능한 암의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얻어진 실험결과는 암 탐지견으로 훈련된 실험견들은 암세포 배양액과 일반세포 배양액을 일반 배양액군과 일반세포(대치태아 세포)를 배양하는데 사용된 배양액군으로부터 선별해 내는데 95%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한 2종의 암세포(대장암 및 유방암)를 체내에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암을 발생시킨 실험용 생쥐들의 배설물을 암 발생전의 정상 배설물군으로부터 선별해 내는데도 발생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역시 95%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얻어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하여, 암세포는 대사과정에서 정상세포와는 다른 대사물질(화학물질)을 생성하고, 그 물질을 일반 세포의 대사물질과는 다른 독특한 냄새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훈련된 개의 우수한 후각을 이용하여 되면 암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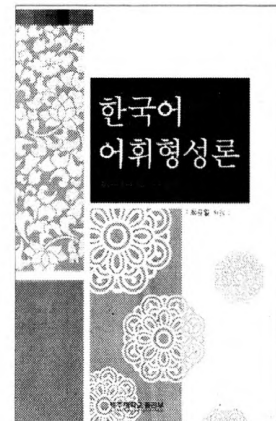
대사물질의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암세포가 동물의 체내에 생성되어 암이 발병하게 되면 발생 초기로부터 암세포 관련 대사물질이 배설되게 되므로, 소변 등 배설물의 냄새를 훈련된 개로 하여금 맡게 하는 방법으로 암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암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개의 후각을 이용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암을 진단할 수 있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향후에는 인간의 다양한 암종류에 대하여 소변이나 혈액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암세포로 인해 발생하는 그 특이 대사물질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성과는 현재 산업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다.

한권의 책

노학자의 '학문열정' 알찬 결실

어휘형성 방법과 계통론 등 연구



최규일 지음
제주대학교 출판부

연구자의 저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기의 연구 결과나, 새로운 사상이나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적극적 자세라 한다면, 이미 세상에 내놓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소극적 자세라 할 수 있다. 많은 경우가 전자에 의미를 둔다. 하지만 퇴임을 앞둔 연구자의 심경은 후자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본 서평은 퇴임 앞 둔 국어교육과 최규일 교수의 역작 『한국어 어휘 형성론』(제주대학교 출판부, 2009)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어휘형성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와 독일어 어휘 비교 연구, 그리고 한국어 계통론에 관한 연구이다. 서로 분리된 것 같아 보이는 구성은 하나의 뿌리와 가지를 가진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다.

부록에서 다뤄진 한국어 계통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필자는 그동안 한국어 계통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국의 학자 4인과 국내 학자 8인의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복잡한 어족의 관계를 계통도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한국어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전 연구를 종합 검토하여 이들 접근의 문제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것은 학자로서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특히 제주 방언과 몽골 어휘에 대한 비교는 이 분야의 후학들에게 흥미로움을 더

해주고 있다.

한국어 어휘 형성에 대한 연구는 시작과 끝을 제외한 8개의 부분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분량(300쪽이 초과)만으로 볼 때 이미 독립된 책 한 권이 될 수 있다. 방대한 분량 속에는 어휘 형성의 원리와 규칙, 고유어, 한자어, 등의 다양한 쓰임이 분석, 검토되고 있다. 기술 방식은 “어휘형성을 어휘형성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법을 취한다. 게다가 어휘 구조를 분석하는 면에서 통괄적, 연합적 구조 분석법을 함께 적용한다.”(p. 20)고 밝히고 있다. 단순 형태적 어휘 형성과정에서 출발하여 맥락적 언어 사용 현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어휘 활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한 논의는 노학자의 식지 않은 언어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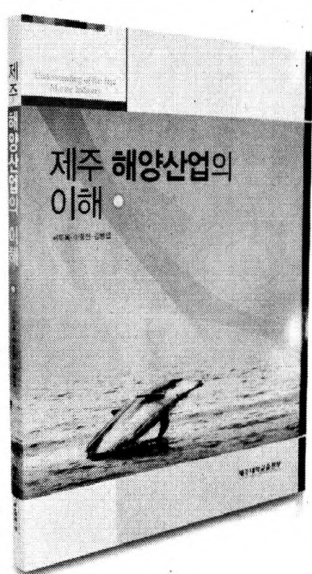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어휘 대조를 통한 한국어와 독일어 비교 연구에 포함된 글은 필자가 기존에 발표하였던 논문을 책의 형식으로 다시 집고 고친 것이다. 계통상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언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연구가 된다. 하지만 몇 사례를 통해 필자는 단순히 외형적 언어 차이를 벗어나 두 언어의 내적 고찰을 통한 통찰력 있는 비교 연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두 언어 간의 어형성법에 대한 유사점, 혹은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 다뤄진 내용은 언어의 비밀의 찾아나서는 흥미 그리고 비교·대조 분석을 통해 복잡한 한국어 어휘 형성에 대한 이해를 대대 주고 있다. 풍부한 사례를 통한 논증은 학문의 농도를 더함으로써 저작의 학문 기여라는 근본을 충실히 이루어 내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전문 언어학적 기술 용어를 자제함으로써 언어 및 어휘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다. 어휘 연구에 평생을 바친 노학자의 숨결이 묻어나는 책이다.

양창용 영어교육과 교수

2009 신간 모음

제주대학교 출판부
CH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 해양산업의 이해

오늘날 세계는 약 6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2050년에는 약 92억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의 부족, 상수부족, 에너지자립, 광물자원의 부족, 생활공간의 부족, 생활환경의 오염, 대기의 온난화, 해면 상승 등 인류의 생활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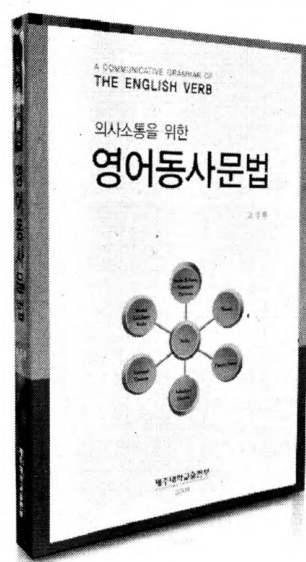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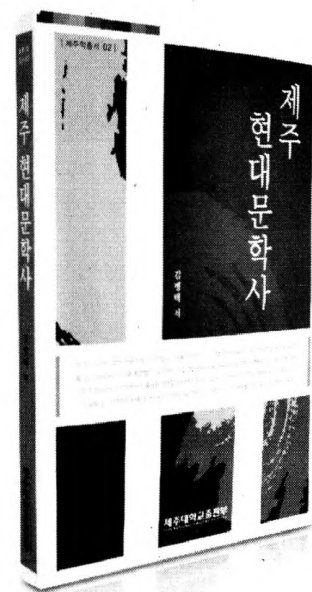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곧 해양은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자원의 보고 특히 식량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서두옥 / 이창현 / 김병택 | 값 13,000원

제주현대문학사

아무리 사적 서술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적 전제 없이 서술된 문학사는 제대로 서술된 문학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학사는 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방법적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제주현대문학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누구에 의해 쓰여지든, 완벽한 문학사는 써야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최소한 아직까지 그런 문학사는 써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책의 단점을 변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김병택 저 | 정가 15,000원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동사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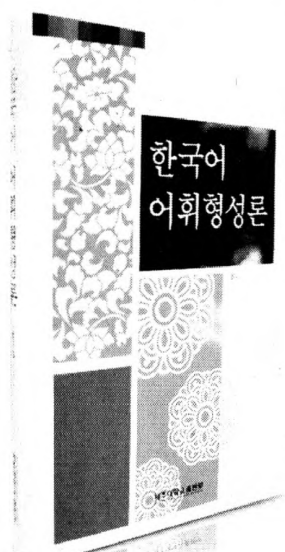
동사는 문장의 '핵' (核: core)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갖가지 문장 구조·태·시간 관계·화자의 심적 태도 따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반드시 형태·기능·의미의 상호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삼자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문법을 논할 수 없다. 이 책은 필자의 『실용영문법해설』 1권(2006 증보판)에서 동사, 조동사, 시제, 수동태, 그리고 2권(2001)에서 부정사절과 동명사절 등 모두 여섯 장을 근간으로 하여 대학에서 영문법을 전공과목의 하나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크게 확충·설명하고 필요한 각주를 상세히 달았다.

고경한 | 정가 20,000원

한국어 어휘형성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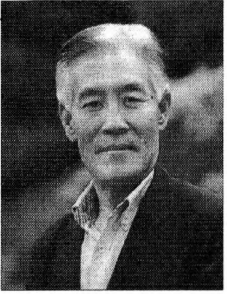
사람은 말과 글로써 사상(思想), 감성(感性)의 세계를 펼쳐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기에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반영된다. 또한 언어는 시대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생성소멸(生成消滅)한다. 그래서 인간은 말에 따라 언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말, 특히 어휘는 언어체계에 내재(內在)한 수많은 언어재(言語材)의 구성요소에 따라 어떤 일련의 원리나 규칙에 근거를 두어 말이 만들어진다.

최규일 지음 | 정가 30,000원



무론유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신동범 식품영양학과 교수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들 즐겁고 보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하여 많은 계획들을 세웠으리라 여겨진다. 그와 동시에 건강한 여름나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건강과 위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유의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건강 측면에서의 여름나기는 여름철이라는 계절특성상 무더위에 자칫 심신이 고갈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대단히 중요하다. 무더위 속에서 장기간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고, '냉방병'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은 냉방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방에서

는 여름철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자연에 역행한다고 하여 피하도록 하면서 가급적이면 뜨거운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여름나기를 위한 식생활은 우리들의 건강과 직결됨으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는 각종 야채와 과일들이 많이 나온다. 제철과일이 제철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박, 참외, 토마토, 복숭아, 포도, 오이, 가지, 호박 등 많은 야채와 과일이 여름철에 생산된다.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강한 햇빛을 많이 쬔 야채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우리 몸을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대명사 수박은 그 빨간 색소에 풍부한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암을 비롯한 여러 생체 합성물질의 발병을 억제해주는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듬뿍 먹어주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Five

A Day' 운동을 벌여 하루에 꼭 5가지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위생 측면이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은 요즘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식중독이란 넓은 의미로 식품기인성 질환에 포함되며,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을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다. 식품에 오염된 세균, 유독물질(유기·무기), 동식물의 독에 의한 이상증상과 함께 신경증상도 포함된 넓은 의미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은 주로 세균들에 의해서 일어나며, 원인 세균 종류에 따라 감염증과 독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염 비브리오, 살모넬라 식중독 등은 감염형 식중독으로서, 많이 번식된 균을 섭취함으로써 장염 등을 일으키는 형태이며, 포도상구균이나 보툴리누스균은 독소형 식중독이다. 여름철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이들 균들이 번식하는데 대단히 쉬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등의 단체

급식시설에서는 특히 주방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식약청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기온에 따라 '식중독 지수'라는 식중독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기도 하다. 식중독 지수가 85이상이면 기온이 35℃ 이상으로 3시간 정도 음식물을 방치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대형 냉장고를 구비하여 가정 내 식중독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냉장고를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식중독균은 저온에서 증식속도가 느릴 뿐 사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냉장 보관 음식은 가급적 다시 익혀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냉방기가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여름나기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해 왔다. 현대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너무 더워나 냉방에 오래 동안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쌓으면서 제철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위생적인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총장 부재 해법 찾기

2009년도 1학기가 다 끝나 방학이다. 하지만 제주대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다. 1학기 내내 걱정과 답답함으로 임기 말 총장과 총장대행체제의 과도기를 보냈지만, 그 래도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조 만간 2009년도 제주대학교의 리더십이 제 자리를 찾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대 총장부재 사태는 더욱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 들 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한 제 주 대 가족들 모두의 심정이다.

제주대 교직원들이 1순위로 선출한 후보를 교육과학부가 반려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교과부는 1순위 총장 후보의 결격사유가 무엇 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총 장 부재의 비정상성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 화시킬 수 있도록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총 장 임용일이 지난 지 2달이 되고 있는 데 에도 왜 총장임용이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그 구성원들이 알지 못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무성의 내지는 방치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적어도 2008 년 6개월간 혹은 1년간 제주대학교 구성원 들이 노심조사해 가면서 1순위 총장임용 후보자를 뽑는 데 들어간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더욱 더 교과부의 무책임한 시 간끌기는 안하무인처럼 비추어지고 있다.

제주대 총장임용추진위원회(총추위)는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처 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제주대 교수회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에 대 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공식 결정을 내 렸다. 총추위의 다수 의견이 총장임용 1순 위 후보에 대한 부적격 사유로서 제시되었 던 영리행위금지 및 무허가겸직이 총장임 용 부적격 사유로 판단되기에는 '경미'하 다는 데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1순위 후보자가 (주)프로필의 대표 이사에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취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를 통해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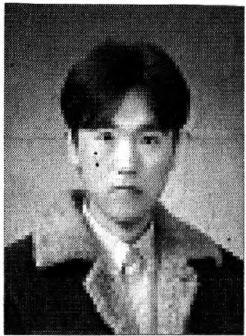
영리적인 업무를 한 바 없고 무보수로 일 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능률저해라든 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과부가 다시 한 번 총장임용 반려에 대해 재고를 해 달라 는 것이다.

제주대 총장부재 사태에 대한 열쇠는 다 시 교과부로 넘겨졌다. 다시 2~3개월 전으 로 돌아가 교과부의 하회를 기다려야 할 판이지만, 이미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의 사가 없음을 언명한 만큼 교과부는 기존의 거부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서 총장부재 사태는 더욱 더 어두운 터널 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 오죽하면 이 러다가 7월 22일까지 총장임용 후보자를 제출하라는 교과부의 입장이 관선 총장을 보내는 최악의 사태로 진전되어 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 게까지야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 방학인데도 모두가 가슴 졸이며 사태 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대로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총장 1순위 후 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교과부와 제주대 총추위 간의 인식 차이에서 핵심은 무엇일 까?

허가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를 겸직하면 서 영리활동을 한 공무원이 총장으로 임용 하기가 곤란하다는 교과부의 강경 입장과 비록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무보수로 대 표이사를 겸직 한 것은 일종의 봉사활동에 해당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지 않 나 는 제주대 총추위 간의 인식 차이에서, 그 결정적 해법은 쉽게 얘기하면 '부당한 돈' 문제로 환원된다. 부당한 돈 거래가 없으면 1순위 총장 후보를 임용해야 할 것 이고, 있다면 재선거하는 게 순리이다. 그 사이에 관선총장이니 하는 편법없이 교과 부와 제주대 구성원 모두의 상호 이해와 여유 찾기가 더욱 요청되는 게 현금의 사 정이다. 올 여름 방학에는 학기 중일 때보 다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학교 지키기에 나서야 할 모양이다.

독자기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다민족축제



신민석 대학원 정치외교

지난 5월 30~31일에 제주시 칠 성로에서 열렸던 제주다민족축제 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작년 에도 같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당 시에는 행사준비보다는 행사 당 일에 당장 필요한 일을 주로하게 돼서 아쉬움 반, 보람 반이 남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행사에는 꼭 행사에 한 부분을 담 당하고 싶은 마음에 올해 행사에 는 행사 준비부터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정부

가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 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2008년부터 5월 마지막 주(20~26일)를 '세 계인 주간'으로 지정, 기업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왔다. 이런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제주다민족축제는 제주도내에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 제주도에 거주 하는 외국인 혹은 이주민들과 제 주도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 하려는 행사이다.

이런 행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원봉사자들이다. 주 로 도내에 자원봉사모임이나, 대 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꾸려진다. 행 사를 위한 프로그램 논의, 행사 준비 과정 그리고 홍보책자를 나 르거나 천막을 치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이들의 없이는 행사의 준 비와 진행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취업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보다

는 와서 즐기고 가려는 생각과 같 은 이유로 점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혹은 참여 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안 에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 을 채우기 위해, 행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친구들과 아는 사 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들도 많 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 유는 다민족이라는 주제가 자신 들과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이 다. 제주에 이주민들의 얼마나 있 는지, 이들의 어떤 생활을 하는지 는 그들의 관심 밖에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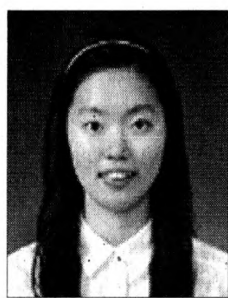
반대로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 에게도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 다민족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행 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다 른 이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은 다민족축제가 다른 행사와 비 교해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스스 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원 봉사자들에게 많이 이하는 행 사 준비와 진행은 자원봉사자들 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요구하

게 되었고, 다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제주다민족축제의 최종적인 목 표는 이주민들의 준비하고 많은 도민들이 보고 즐기려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 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민들은 행 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 하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주5일 제 일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으 며, 결혼이주민의 경우는 집안일 과 양육에 드는 시간을 줄이면서 다민족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제주다민족축 제와 같은 행사가 올바르게 정착 한다면, 제주에 와서 가정을 꾸린 혹은 일을 하러 오거나 학업을 위 해서 온 외국인들이 쉽게 제주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인 토대를 만드는 하나에 주춧돌 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쉽지 않 은 자원봉사회에서도 곳곳히 행사를 준비해온 자원봉사자들과 조금씩 늘고 있는 도민들의 이주 민에 대한 관심이 이런 나의 믿을 을 현실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 는다.

독자기고

희망도서 구입기간 단축했으면



김명진 국어국문 1

입학하고 처음으로 중앙도서관 을 찾았을 때 신간도서가 따로 배 치 되어있는 곳이 없어서 깜짝 놀 랐다. 특히 신간도서를 접할 수 있 는 곳이 없어 많이 아쉬웠다.

물론 도서관 자료실에 수업시간 에 참고 할 수 있는 책들은 여러 권 배치되어 있어 수업시간에 도 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 용하는 목적은 참고도서를 찾는

때와 열람실을 이용할 때 이 두가 지뿐이다.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위 에서 듣고 우리들 또한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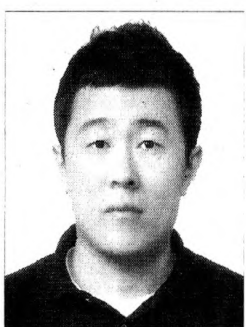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배치해 준다면 학생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새로 운 책들을 접하게 해주는 것이 도 서관의 역할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 학교 도서관은 이 역할을 수행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는 교양으로 듣고 있는 한 과 목에서 여러 가지 책 목록 중 한 권을 골라 학기 중간에 독후감을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다. 교수님 게서 책 목록을 학기초에 알려주 서서 책 목록 중 마음에 드는 도 서를 골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검색 을 했다. 학교도서관에는 이 책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희망도서 신 청을 했다. 하지만 책은 학기 중간 까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나는

결국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봐야 했다. 책을 신청하고 오랜 시 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신청을 하 고 나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고 했다.

물론 신청한 책들의 배치 여부 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정이 너무 오래 걸 러서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읽 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 는 역할을 도서관에서 이행해 주 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 관에서 희망도서 신청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부분을 수정하고 신 간도서부문을 새로 만들어 주었 으면 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단 지 도서관을 찾는 목적을 개인 공 부목적과 참고 도서를 찾는 것에 서서 책 목록 중 마음에 드는 도 서를 골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검색 을 했다. 학교도서관에는 이 책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희망도서 신 청을 했다. 하지만 책은 학기 중간 까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나는

독자기고

“어학연수 해외로 왜 가요?”



안규영 수의학과 4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대학 에 수준별 영어집중강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만 이 수강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생 이 영어공부를 위하여 많은 비용 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안타까워 서 이 교과목을 소개하기 위함

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설영어학원에 등록하거나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한다. 사설영어학원에서 60시간 수강을 하려면 40~60만원, 동영상 강의에 60만원, 원어민과의 전화영어에 월 20만원의 수강료가 필요하다. 여름방학중 영어권 국가에 2개월 간 어학연수를 다녀오려면 약 1300만원이 소요된다. 과연 해외 어학연수는 꼭 필요한 것인가? 해외어학연수를 대신할 수 있는 수 준별 영어집중강의는 없을까?

나 자신도 학기초 이 수업이 있 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나 지인들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그 덕택에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 기 회가 되었다. 1학기 수업에 나는 '중급 글쓰기'라는 교양선택교과 목을 수강하였다. 이 교과목은 공 통교양 이수학점 8학점 중 외국어

영역 4학점이 인정되는 선택교양 과목이면서, 일주일에 두 번 두 시 간씩 총 60시간의 수업이 이루어 졌다. 14명의 학생이 영어로 듣고, 말하고, 과제 및 글쓰기 수업을 하 면서 항상 영어로 생각할 수 있었 다. 교수님이 원하는 영어 글쓰기 는 단순히 일기 쓰거나 생활 영어 가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글 쓰기였으며, 수업 후 교수님의 첨 사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글 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나는 한 한 편당 2000단어 분량의 “바람직한 대학 생활을 위한 학교 생활

(Accomplishment in your study and tips on good school life)”과 “바람직한 영어학습법 (How to improve your English)”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 의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 에서 나는 영문법과 표현의 완성

도가 높은 글을 완성하고 영어 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 중 에 돈을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 기 때문에 굳이 해외어학연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교과 목은 계절학기에도 개설되었으며, 4명의 학생이 수강한다고 한다.

수준별 영어집중교육프로그램 은 필요하다. 대학에서 개설된 수 준별 영어집중강의가 많은 학생 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부 학생만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글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해외어학연수가 아니라 대학의 수준별 영어집중 교과목인 ‘중급글쓰기, 중급말하 기, 고급글쓰기, 고급말하기’ 교 과목을 수강하면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문면에 게재하 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ejunu.ac.kr, 홈페이지 http://www.cnpupress.com

▣ 지방자치단체와 재일제주인 교류의 활성화 방안

재일제주인의 역할, 인식 전환부터... 체계적·종합적 접근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여부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에 달려있다. 사람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한 교류와 이동은 국제도시로서의 지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이유에서 역사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재일제주인과 제주의 교류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일제주인과의 협력관계를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100만 제주인’ 가운데 재일 제주인은 10만7천여명으로 재일동포 전체(약 63만)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2005년 말). 제주도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현재의 세대별 구성 비율(1세 6%, 2세 37%, 3세 48%, 4·5세가 9%)이 보여주듯, 이제 이주 2세대를 넘어 3세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이주 1세대의 퇴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제주인들은 대부분 도쿄(東京)나 오사카(大阪)의 대도시에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경에는 미카시마(三河島), 대판에는 이쿠노구(生野區)를 중심으로 재일 제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이 한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친목단체 등과 같은 비공식조직이 잘 형성되어 지인, 학연, 혈연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재일제주인을 포함한 재외도민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 재일제주인 고향방문사업(1997~)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봉환사업(1998~)

재외도민 상담실 운영(1997~) ○ 청소년을 위한 하계향토학교 운영(1978~) ○ 재외도민회 임원과 정향토학교 운영(2002~) ○ 애항묘지 조성(1991년 6월 조성~) ○ 조상방 찾아주기 사업(2000~) ○ 제주출신 우수인력 D/B화 ○ 탐라영재관 건립(2000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미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도민적 차원의 연구와 인식이 부족하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일제주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플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재일제주인의 교육과 경제적 상호교류의 지향점과 목적은 무엇인지, 이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 등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확보·운영되어야 하는지, 상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사업 대상과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재일제주인을 대상으로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주로 방문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출신 동포들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상을 확대하고, 협력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재외도민 1세를 위한 사업이며 후속세대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사업집행의 형식성을 들 수 있다. 행사실

적과 외형만을 생각하고 프로그램과 행사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참가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기대한 성과는 고사하고 역효과와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인력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외국어 구사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부재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재일제주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기존 사업에 대해 재일제주인의 의견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로부터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재외도민의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100만 제주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5만이 재외도민이며 그 가운데 약 25%는 재일제주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재외도민을 단 2명의 재외도민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의 해외도민 담당조직은 필수적이다. 인력의 보강과 더불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현지감각을 갖춘 담당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외제주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의 지향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재일제주인은 제주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전환에 바탕을 둔 분야별(경제, 문화, 정치 등) 네트워크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2세와 그 이후의 교육, 특히 언어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재일제주인의 교육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차세대 교육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를 잇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계획과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하겠다. 또한 일본의 주요도시는 제주특산물의 홍보와 투자처로서 홍보의 가치가 있으며 이 경우 재일 제주도 민회의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

넷째, 재일제주인과의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JDC 등과 같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기관들과의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 관련 재일동포 가운데 경제적 위치와 관련하여, 재일제주인은 해외 교류의 일차적 대상이며, 제주의 국제화와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도움을 주는 제주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와 투자는 필수적이다.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경험과 경제력 그리고 차세대의 유연한 국제적 안목을 효과적으로 제주에 접목시켜 고향 제주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 협력네트워크 형성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다. 이를 위한 제주 지역사회의 인식전환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 하겠다.

다섯째, 중앙정부 재외동포 지원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와 그의 유관기관인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해외동포 관련 프로그램을 심분 활용하여 예산 및 제도상의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이버 공동체의 구축 필요성이 있다. 재일제주인과의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on-line 상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쌍방향의사전달 및 교류

의 장 제공, 경제·교육 등 관련정보 제공, 제주형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제주공동체의 포털시스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의 재일제주인 프로그램에 대해 그 활동내용과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출신 우수인력의 D/B의 경우 정보 공유의 범주를 확대하고 자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은 해외 거점지역의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거점지역의 청명역할자로서 재일제주인의 역할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갖는 국제적이고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재일제주인은 해외 교류의 일차적 대상이며, 제주의 국제화와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도움을 주는 제주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와 투자는 필수적이다.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경험과 경제력 그리고 차세대의 유연한 국제적 안목을 효과적으로 제주에 접목시켜 고향 제주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 협력네트워크 형성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다. 이를 위한 제주 지역사회의 인식전환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 하겠다.

이경원 행정학과 교수



▣ 재일제주인과의 협력, 이제 시작이다

총체적인 학술적 접근과 관심 필요... 상호 호혜주의 원칙 지켜야

재일제주인은 제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들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상생하는 길을 더욱 확장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교류도 중요하다. 한때 역사의 변두리에 살았지만, 남들보다 많고 깊게 국제교류를 경험한 제주에서 역사의 중심부가 되고 선진이 되는 방법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제주는 한국의 주변부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부로 부각되고 있다.

다. 그들이 제주적인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외국에서 마을 공동체를 지탱해 온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2·3세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왔는지, 혼인에 의한 정체성 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것이었다. 이제 그들에 대한 총체적인 학술적 접근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협력 구축 방안

재일제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잘 모른다. 제주에서 생각하는 재일제주인과 그곳에서 자신들을 생각하는 정체성 사이에는 편차가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만을 생각해 왔지, '지금 거기'를 생각하지 못했다. 과거의 여기와 거기는 끈이 존재했다. 거기의 그들은 끊임없이 제주에 돌아올 것을 전제로 살아 왔다. 그러나 시간

이 흐르고, 1세대는 무대를 떠난 뒤, 2·3세대가 주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와 거기는 다르다. 우리는 우선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거기에 살게 된 2·3세대들이 제주와 끈을 이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거기'에 있는 2·3세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언어와 문화, 교육, 재일제주인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 참정권 보장 등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재일제주인 2~4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재일제주인과의 협력 주체는 2~4세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그들을 위해 제주 향토학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언어와 문화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한국어, 제주어, 제주사, 제주문화를 교육하고 제주 소재 대학에 입학 기회 부여(전문과정 - 예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하고, 재일제주인의 한국기업 취업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현지에서 나가 언어·문화·전문·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다.

재일제주인과의 교류 프로젝트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아직도 궁핍한 사람, 이민 1세대와 2~4세대,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신분(영주, 거주, 유학, 불법 체류)을 망라한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민 1세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민족이산)를 겪고 경계인으로 살아오고 있어 문화적 충격과 경제적 궁핍을 면치 못하고, 대부분은 3D 업종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 치유책을 강구할 시기다. 안의 역사만 있고, 밖의 역사는 무시하는 근시안적 관점을 교정해야 한다. 재일제주인의 복지문제, 인권문제, 국내 재산문제 등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100만 제주인이라 말하면서도 제주의 역사 속에 재일제주인 20~30만의 역사는 극히 제한적이

다. 이제 근대사 속에 재일제주인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편입시켜야 한다. 일제 강점과 해방 후의 좌우의 갈등과 같은 민족사의 비극 때문에 일본사회로 밀려나 있던 그들이 제주를 향해 “우리를 놓아달라”고 하기 전에 당연히 그들 재일제주인을 당당한 역사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들이 고향에 왔을 때 한국어를 모른다고 ‘반쪽말이’란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일본에서의 삶이 고단하여 귀화하였더라도 ‘쪽말이’라 지칭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한일전에서 일본 측구를 응원하거나 한국문화를 잘 모르더라도 일본인이란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민족은 언어와 국적과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개념이어야 한다. 그들은 두 경계의 중간에서 있고, 그들은 한일 교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한·일 평화를 원한다면 그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논할 시기다.

허남준 국어국문학과 교수

